모든 태그는 <>안에, 그 끝은 </>로 표시

끝 표시 안하면 에러 자체는 안 남.

시작표시 안하고 끝 표시만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남.

태그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.

<title> : 창의 이름이 됨. 검색에서 노출을 더 많이 해줌,

<meta charset= "utf-8"> : 저 형식을 meta로서 사용해라. Meta는 명령.

모든 웹페이지의 시작은 <html>로. (얘도 끝이 있다.)

그리고 헤더 부분은 <head>로, 본문은 또 <body>로 감싸라.

bold체: <strong>

밑줄: <u>

제목: <h1> ~ <h6> 자동 줄바꿈, 볼드, 글씨 크기

줄바꿈: <br> 닫을 필요 없음.

단락 표시: <p> 닫을 필요 있음. 정해진 만큼만 떨어뜨릴 수 있음.

속성: 태그의 심화 버전

<img src= “이미지 파일명” width=”100%”>

오른쪽을 왼쪽에 대입하는 건 같다. 다른 점은 무조건 그 오른쪽 조건을 “ ” 안에 쓰는 것.

<img width= "10%" src="test.jpg" >

이런 식으로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 없다.

맨 앞에 img라고 명시해서, 보낼 파일의 자료형만 제대로 받았다면, 그 조건은 순서 상관없이 나열 가능.

부모와 자식 태그(같이 오는 애들)

Ex) <li>태그는 끝이 있는 태그. 요소들을 나열할 때 검정색 동그라미를 표시해줌.

이 동그라미들을 구획으로 나눠주는 게 <ul>이다. 얘도 끝이 있는 태그이다.

<ul>

<li> 1. HTML </li>

<li> 2. CSS </li>

<li> 3. Javascript </li>

</ul>

<ul>

<li> justin </li>

<li> andy </li>

</ul>

이런 식으로.

<ol>도 쓸 수가 있다.

Ol 은 ordered list , ul은 unordered list.

전자는 알아서 순번 메겨주고, 후자는 그냥 동그라미만 쳐준다.

<a> : link. 어딜가나 보이는 하이퍼링크이다. 사실상 br말고는 모든 태그가 끝이 있네.

이건 무조건 하이퍼링크를 달려는 텍스트 앞에 와야 한다.

<a title=”네이버 링크” target="\_blank" href="https://www.naver.com/">안녕</a>

여기서 a는 자료형… 이 아니라 명령어라고 보면 될 듯.

Target=”\_blank”는 블랭크 페이지에 저 창을 띄워라.

Href 에서 h는 하이퍼링크, ref는 “참조”라는 뜻. 즉, 저 링크를 하이퍼링크로써 참조해서 열라는 뜻.

title=”네이버 링크” 이건 그 하이퍼텍스트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뜨는 설명.